

러시아 동방학 및 한국학 연구자
유. 엠. 부찐(1931-2002) 평전(評傳):
그의 탄생 90주년에 즈음하여

유리 바실리에비치 쿠즈민,
이리나 예프게니예브나 코지르스카야
번역: 문일웅*

논문 초록 | 이 글은 한국학자, 역사학자, 경제학자로 유명한 유리 미하일로비치 부찐(Юрий Михайлович Бутин) 교수의 인생 주요 단계들을 다룬 평전(評傳)이다. 그의 삶과 학술적 전기(傳記)와 관련하여 새로운 정보는 학문상의 진전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에 대한 학술적 전기 내용의 일부는 출처가 불분명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유. 엠. 부찐의 한국 고대사 관련 업적들은 러시아와 남한에서 학문적으로 인정받았다.

논문 키워드 | 유. 엠. 부찐(Ю. М. Бутин), 동방학, 평전(評傳), 한국

(원본 서지사항: Кузьмин Ю. В., Козырская, И. Е., ‘Творческая биография

* Юрий Васильевич Кузьмин(유리 바실리에비치 쿠즈민). 바이칼 국립 대학(Байкаль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러시아 역사학과(Кафедра отечественной истории) 정교수. kuzminuv@yandex.ru
Ирина Евгеньевна Козырская(이리나 예프게니예브나 코지르스카야). 바이칼 국립 대학(Байкаль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세계경제와 경제안보 학과(Кафедра ми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и экономическ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조교수. kozyrskaya@mail.ru
문일웅(文一熊).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소. bany163@gmail.com
DOI URL: <http://dx.doi.org/10.17792/kcs.2024.47..211>

российского востоковеда и корееведа Ю.М. Бутина (1931-2002): к 90-ЛЕТИЮ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Иркутский историко-эконом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Иркутск: Изд-во БГУЭП, 2021. С.437-445)

역사학 박사이자 경제학 준박사인 유리 미하일로비치 부찢(1931-2002) 교수는 소련 및 러시아의 유명한 동방학자, 한국학자, 역사학자, 경제학자였다. 그는 한국 고대사, 동아시아 경제사 연구에 크게 기여했으며, 1990년대-2000년대 이르쿠츠크의 한국어 연구를 부흥시켰다.

유. 엠. 부찢의 창조적인 유산은 러시아 역사학계에서 이제 막 연구되기 시작했다.¹⁾ 그에 대한 평론은 거의 없다. 유. 엠. 부찢의 한국 고대사 저작이 번역된 남한에서는 그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일고 있지만, 그의 전기(傳記) 자료는 남한에 거의 알려진 바 없다.

필자는 2020년에 「군사 통역가, 동방학자, 경제학자, 역사학자인 유리 미하일로비치 부찢(Юрий Михайлович Бутин) 교수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²⁾ 이후 필자는 연구소장으로부터 편지를 한 통 받았는데,

1) Ю. В. Кузьмин, ‘Профессор Юрий Михайлович Бутин - создатель кафедры ми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БГУЭП’, “Четверть века кафедре ми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Байкаль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экономики и права”, Иркутск : Изд-во БГУЭП, 2014, С. 40-44.

(유. 베. 쿠프민, 「바이칼 국립 경제 법학 대학의 세계경제학과 설립자, 유리 미하일로비치 부찢 교수」, 『바이칼 국립 경제 법학 대학 세계경제학과 25주년 기념 논문집』, 이르쿠츠크: 바이칼 국립 경제 법학 대학 출판부, 2014, 40-44쪽)

2) Ю. В. Кузьмин, ‘Профессор Юрий Михайлович Бутин - военный переводчик, востоковед, экономист и историк’, “Известия Иркут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Серия История)”, Т. 34, 2020, С. 65-72.

(유. 베. 쿠프민, 「군사 통역가, 동방학자, 경제학자, 역사학자인 유리 미하일로비치 부찢(Юрий Михайлович Бутин) 교수에 대하여」, 『이르쿠츠크 국립 대학 학보(역사편)』34, 2020, 65-72쪽)

그 내용은, 한국의 고고학자 강인욱 교수가 유. 엠. 부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평전(評傳)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해 왔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유. 엠. 부쩐의 전기 자료와 평전(評傳)을 신중하게 탐색했다. 우리 들은 몇 달 간 그가 창설한 바이칼 국립 대학(БГУ: Байкаль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이르쿠츠크 국립 경제 아카데미(ИГЭА: Иркутска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академия) 세계경제학과, 그리고 유. 엠. 부쩐이 학과장으로 재직했던 이르쿠츠크 국립 기술 연구 대학(ИрГТУ: Иркутский национальный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й техниче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동방언어학과와 시베리아 법·경제 및 경영 아카데미(САПЭУ, Сибирская академия права, экономики и управления) 등의 이르쿠츠크 동료 역사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을 탐문했으며, 마찬가지로 모스크바와 크라스노야르스크 동방학자들에게도 그에 대해 질의하였다. 그 결과 이전에는 특별한 관심을 받지 못했던 연구자 유. 엠. 부쩐에 대한 흥미로운 세부 정보가 밝혀졌다. 필자들은 바이칼 국립 대학의 현대 문서보관소에서 유리 미하일로비치 부쩐의 준박사 학위논문 심사에 대한 자료 한 건만을 가까스로 찾을 수 있었다.³⁾ 다른 자료들은 그가 해당 직장에서 퇴직하면서 없어져 버렸다. 필자들은 그의 이전 직장에 여러 차례 문의하였으며 편지도 여러 번 보내보았지만 여지껏 받은 회신은 없다. 그에 대한 탐색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그의 생애와 관련하여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 엠. 부쩐은 말년에 가까이 지내던 학과의 동료들에게 자신의 친족관계를 말한 적이 있었다. 그는 금광소유자이자 시베리아의 문예·학술 후원자로

3) 'Личное дело Ю. М. Бутина по защите кандидатской диссертации. 1969 г.', Текущий архив БГУ, 12л.
(「준박사 학위논문 심사와 관련한 유. 엠. 부쩐 개인 자료(1969년)」, 바이칼 국립 대학 현대 문서보관소 소장. 총 12면.)

알려진 상인 미하일 드미트리예비치 부찐(Михаил Дмитриевич Бутин, 1835-1907)이 자신의 친할아버지였다고 하였다. 엠. 데. 부찐은 아이가 없었지만, 가까운 관계였던 자바이칼 지역의 카자크 여인에게서 두 아이를 두었다고 알려져 있다. 아이들 가운데 남자 아이의 이름은 아버지 이름을 따 미하일로 지었는데, 그는 유. 엠. 부찐 교수의 아버지였다.

외국어에 대한 뛰어난 지식, 다소 귀족적인 학문적 언행, 피아노를 연주했던 것과 기타 세부적인 부분을 통해 이 설이 신빙성 있는 것임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아울러 유리 미하일로비치의 사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을 더 파고 들면 파고들수록 이 설은 더욱 더 사실과 잘 부합되었다. 물론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문헌자료를 찾을 필요가 있다.

필자들이 찾아낸 그의 문건(1969년 작성)에서는 그가 노동계급 출신이며, 공산당 비당원, 국가적인 표창을 수상한 적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며, 1952년에서 1955년까지 북한에 파견되었던 것도 함께 기록되어 있었다. 아울러 엠. 데. 부찐과 유. 엠. 부찐은, 둘 다 다소간 통구스적인 특징을 지닌 얼굴이라는 외모적인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의 할아버지인 미하일 드리트리예비치는 여러 면에서 독특한 인물이었다.⁴⁾ 그는 칸딘스키 상인 가문의 점원 생활로부터 상업활동을 시작하여 점차 1급 길드⁵⁾ 소속 상인, 거대 기업가, 금광 50곳과 대형 공장들의 소유주이자 빵과 제조업 무역에 종사하는 수준으로 성장했다. 그는 네르친스크에 중학교, 음악학교, 약국, 인쇄소 설립에 자금을 기부하였으며, 중국에 네르친

4) Н. Н. Константинова, 'Бутин Михаил Дмитриевич', "Энциклопедия Забайкалья. Читинская область", Т. 2, Москва : Наука, 2004., С.164-165

(엔. 엔. 콘스탄찌노바, 「미하일 드미트리예비치 부찐」, 엔. 엔. 콘스탄찌노바 편, 『자바이칼 지방 치타주 백과사전』2, 모스크바: 나우카, 2004, 164-165쪽)

5) (역주1) 1급 길드: 제정 러시아의 길드는 서유럽의 길드와는 다소 성격을 달리했다. 제정 러시아는 상인 계급을 총 3등급으로 나누어 관리하였는데, 1급 길드는 그 가운데서 가장 거대한 자본을 소유한 상인만이 가입할 수 있었다.

스크-텐진(天津) 학술 원정대를 파견하였다. 아울러 그는 네르친스크에 무어-고딕 양식의 아름다운 궁전을 지어 말년에 이를 도시에 넘겼다. 그는 경쟁자들에게 의해 파산당했지만 남은 재산은 자선 단체와 지역 교육에 기부하였다.⁶⁾

유. 엠. 부젠의 평전(評傳) 및 그의 인생 노정에서 특징적인 점은 직장과 활동 방향의 잦은 변경이라 할 수 있었다. 그는 북한에서 한국어 군사 통역가, 타지키스탄-자바이칼-이르쿠츠크 등지 산업체에서 경제학자, 이르쿠츠크-노보시비르스크-알마티에서 연구원, 소련과 러시아의 고등교육기관 강사 및 교수 생활을 했었다. 말하자면 통역가, 실무 경제학자, 지역 경제 부문의 연구원, 그리고 이후에는 역사 및 고고학 분야 연구원, 고등교육기관에서의 경제 과목 및 한국어 강사를 역임했던 것이었다.

유. 엠. 부젠은 동방 언어, 그 가운데서도 한국어 통역가로 활동했던 것이 첫 전문적 활동이었는데, 이는 그의 학문적 이력을 결정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한국전쟁 당시 군사 통역사가 필요했듯, 한국어를 비롯한 중국어, 일본어 등의 동방 언어 역량은 노보시비르스크의 소련 과학 아카데미 시베리아 분원 소속 연구원, 이후에는 이르쿠츠크의 여러 고등교육기관에서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노보시비르스크에서 그는 아마도 한국어 전문가로서, 유라시아의 광대한 고고학 문화를 깊이 천착한 소련 과학 아카데미 회원 아. 페. 오클라드니코프(А. П. Окладникова)의 고고학 연구 교실에 초빙되었던 것 같다.

유. 엠. 부젠은,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영어 군사 통역사를 양성하는 칸스크 군사 통역 학교(Канская школа военных переводчиков)에서 한국어 및 다른 동방 언어를 공부했다. 칸스크 군사 통역 학교, 혹은 극동

6) Гл. ред. К. К. Ильковский, “Нерчинский Завод”, Чита : Забайкал. гос. ун-т. 2015. 520 с.

(카. 카. 일코프스키 등 편, 『네르친스키 자보드』, 치타: 자바이칼 국립 대학, 2015., 총 520쪽)

군사 통역 학교(Дальневосточная школа военных переводчиков)는 일종의 군사 통역 연구소의 분교였다. 이 학교는 1943년에 다른 군사 학교와 함께 러시아 중부에서 크라스노야르스크주 칸스크로 이전했다. 이곳에서는 얼마 후인 1945년에서 1950년대에 한국, 일본 등의 극동 지역에서 벌어질 복잡한 사안들에 대비하여 매우 유능한 군사 통역사들이 양성되었다. 이 가운데 중국학 연구자의 양성에 대해서는 크라스노야르스크의 중국학 연구자인 베. 게. 다찌첸(В. Г. Дацьшен) 교수가 『시베리아 예니세이강 유역에서의 소련-중국 관계(1917년-1980년대 초)』에서 밝힌 바 있다.⁷⁾

칸스크 군사 통역 학교에서의 교육은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학교 생도들에게는 하루에 6-7시간 외국어를 공부하도록 상당히 빡빡한 생활이 요구되었으며, 중도 탈락자도 상당수 발생하였다. 그렇기에 중국어반 생도 106명 가운데 단지 26명만이 중국으로 복무하러 떠날 수 있었다. 일본어반과 한국어반 생도는 중국어반에 비해 현저하게 적었음에도 임관을 위한 선발은 매우 엄격했으며, 생도 다수가 동방 언어 훈련에서 요구되는 바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중국어 강사는 중국학 연구자로 유명한 데. 엔. 보스크레센스키(Д. Н. Воскресенский, 1926-2017), 대위(大尉) 진푸탄(Дин Футан)이었으며, 영어와 일본어 강사는 동방 외국어 연구소(Восточный институт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졸업생이자 훗날 공상과학 작가로 유명해진 아. 스트루가츠키(А. Стругацкий)였다.

베. 게. 다찌첸(В. Г. Дацьшен)에 의하면, 칸스크 군사 통역 학교 문서보관소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기에 해당 학교와 관련된 정보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중국어반 훈련에 대해 중국어 및 영어 강사 일부가 겹쳤다는

7) В. Г. Дацьшен, “Приенисейская Сибирь в советско-китайских отношениях (1917 - начало 1980-х гг.)”, Красноярск : Сиб. фед. ун-т, 2016, С.242-247 (베. 게. 다찌첸, 『시베리아 예니세이강 유역에서의 소련-중국 관계(1917년-1980년대 초)』, 크라스노야르스크: 시베리아 연방 대학, 2016, 242-247쪽)

것만 알려졌을 뿐, 이 학교의 다른 반 훈련 양상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 엠. 부쩐은 성공적으로 훈련과정을 마쳤으며, 북한에서 복무하며 더욱 양질의 언어적 훈련을 받을 수 있었다.

소련의 작가이자 번역가, 시나리오 작가 엠. 이. 데미젠코(M. И. Демиденко)는 칸스크 군사 통역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었으며, 중국 인민지원군의 통역으로 중국과 북한에서 복무하였었다. 그는 회고록에서 자신이 받았던 훈련의 정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한 바 있었다. “우리 칸스크 출신 통역가들은 여러 면에서 군 외국어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들보다 더 나았다. 그게 우리의 장점이었다.”⁸⁾ 1949년에 엠. 이. 데미젠코는 극동의 상황이 악화되었기에 칸스크 군사 통역학교로 특별 징집 되었다. 중국어반과 한국어반의 졸업은 매우 적절한 때 이루어졌다. 엠. 이. 데미젠코의 회고에 의하면, “칸스크에서 학교장 날반도프(Налбандов) 대령은 친히 중위들을 임관시켰다. 생도들은 연병장에 대열을 이루고 서 있었고, 우리는 예정보다 일찍 졸업했다(그때 한국전쟁이 시작되었다). 졸업생들은 한 사람씩 날반도프 대령에게 다가갔고, 대령은 러시아의 옛 관습에 따라 졸업생의 제복 오른쪽에 중위 견장을 직접 달아주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막사로 가 장교복으로 갈아입고 대열을 갖춘 다음, 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추어 행진 걸음으로 사열대를 지나갔다. …… (중략) …… 그리고 나서 한 달 동안 클럽에서 생활했고, 격일로 근무했다. 총참모부는 4~6명씩 한 묶음으로 우리를 차출하였다. 그러고는 쉴 틈 없이 빨리 빨리 우리를 모스크바로, 혹은 중국으로 보냈다.”⁹⁾

유. 엠. 부쩐은 1956년에 스탈리노바드¹⁰⁾에 위치한 타지크 대학에 입학하여 1960년에 졸업하였고 산업경제학자 직업을 배정받았다. 고등교육 받을

8) 베. 게. 다찌센, 앞의 책, 245쪽

9) 베. 게. 다찌센, 앞의 책, 244쪽

10) (역주2) 스탈리노바드(Сталинобод): 지금의 타지키스탄 수도 두산베(Душанбе)의 옛 이름이다. 본래 이 도시의 이름은 두산베였으나 스탈린 집권기 스탈린의 이름을 따 스탈리노바드로 바꾸었다. 흐루쇼프 집권 이후 이름을 다시 두산베로 되돌렸다.

곳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 있는데, 아마도 그가 그곳으로 가게 된 것은 소련 당국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을 것이다. 이후 그는 소련의 여러 지역에서 시종일관 국영기업에 소속되어 일하였다. 그는 1960년에서 1961년까지 건설자재연구소 표준연구부 선임 엔지니어로 근무했으며, 1961년에서 1962년까지 치타주(Читинская область) 우스트-카르스크(Усть-Карск) 정착지에서 우스트-카르스크 지질탐사대의 선임 경제학자로 근무했다. 그리고 그는 1962년에서 1963년까지 치타(Чита) 소재 가죽-신발 콤비나트의 계획부 책임자로, 1963년에서 1964년까지 이르쿠츠크에서 동부 시베리아 건설 자재국의 선임 경제학자로, 이후 앙가르스크(Ангарск) 소재 시멘트 공장의 수석 경제학자로 근무했다.

유. 엠. 부쩨은 제법 성공적으로 경제학적 전문성을 습득했으며, 1960년에서 1965년 사이 타지키스탄과 동부 시베리아의 여러 조직들에서 근무하며 경제 분야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지만, 이후에 그는 삶을 극적으로 전환하여 대학원 과정에 진학하였다. 그는 자신의 능력과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 그리고 연구직에 대한 갈망으로 동부 시베리아 경제학 연구소로 향했다.

1969년에 그는 『동부 시베리아의 건설 자재 산업 육성과 배치(Развитие и размещение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строительных материалов Восточной Сибири)』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경제학 준박사 학위(‘경제학, 건설산업의 배치와 계획’ 전공)를 취득하는 데 성공했다. 유리 미하일로비치는 1965년에서 1967년에 이르는 동안 시베리아 및 극동 지리학 연구소 대학원생 신분으로 이르쿠츠크에서 학위논문을 준비하였다. 이후에 그는 1967년에서 1969년까지 동부 시베리아 지역 경제 및 생산력 배치부의 하급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동부 시베리아에 위치한 이 두 곳의 거대한 연구 센터는 유. 엠. 부쩨이 실질적인 경험을 지닌 뛰어난 경제 분석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연구 활동에 대한 욕구가 우세했기 때문에

실무 경제학자로서의 성공적인 경력은 아무래도 그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 우리는 유. 엠. 부젠의 개인 자료에서 서술된 내용을 통해 그가 경제 분야에 재직중이던 1963년에 시베리아 및 극동 지리학 연구소의 ‘경제 지리’ 전공 비전일제 대학원생이 되었으며, 1965년에는 전일제 대학원생으로 편입하였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 수 있었다.¹¹⁾

이르쿠츠크 인민 경제 연구소(Иркутский институт народного хозяйства)에서 유. 엠. 부젠이 준박사 학위논문을 심사받을 당시 생산된 개인 자료에는 블리디미르 일리치 레닌 명칭 타지크 대학(Таджик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им. В. И. Ленина) 졸업 증명서 사본과 함께 준박사 졸업자격시험 합격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해당 기록들에 의하면 이르쿠츠크의 주요 강사인 철학자 엘. 아. 페트로프(Л. А. Петров), 지리학자 베. 베. 보로비예프(В. В. Воробьев), 경제학자 엠. 베. 나우치첸(М. В. Научитель)은 그의 변증법적 유물론과 영어에 대해 “매우 우수함”, 경제지리학과 건설경제학에 대해 “우수함”으로 평가하였다. 아울러 해당 문건에는 학위 청구자가 발표한 학술 업적의 목록, 학위청구 논문에 대한 공식 심사자(베. 페. 아를로프 교수, 계획위원회 부위원장 엠. 나우모바)들의 의견들, 그리고 논문 심사에 대한 합동 연구 위원회(Объединённый учёный совет)의 1969년 6월 13일자 결정(위원장 베. 돌취니흐 교수)도 첨부되어 있었다.

유. 엠. 부젠은 1974년부터 노보시비르스크에 위치한 소련 과학 아카데미 시베리아 지부의 역사, 문헌학, 철학 연구소에서 순조롭게 근무를 시작했다. 그곳에 근무하던 소련의 저명한 역사학자고고학자이자 과학 아카데미 회원인 아. 페. 오클라드니코프는 시베리아, 극동, 몽골인민공화국에서 고고학적 발굴을 오랫동안(소련-몽골 공동 역사고고학 발굴을 수년간 이끌었다) 활발하게 수행하였던 사람이었다. 오클라드니코프는 유라시아의 광활한 지역을 풍부하게 조사하였으며, 중국, 한국, 일본 등의 동아시아의 고고학적 문화에

11) 「준박사 학위논문 심사와 관련한 유. 엠. 부젠 개인 자료(1969년)」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고, 동아시아 국가들 및 미국(알래스카) 연구자들과 함께 고고학적 조사를 진행했던 인물이었다.

주지하듯, 레닌그라드 국립 대학 동방학부에서 동방 국가들의 역사, 문화, 고고학 전공으로 졸업한, 고고학자이자 동방학자였던 베. 예. 라리체프(1932-2014)는 북한으로부터 한국어로 된 고고학 출판물을 받고는 그것에 대한 양질의 번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공개된 정보에 의하면 라리체프는 얼마간 이르쿠츠크에서 소련 과학 아카데미 시베리아 지부의 경제와 산업생산 배치 연구소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도 그때 이르쿠츠크 소재 해당 연구소의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유. 엠. 부쩨과 알게 되었을 것이다. 노보시비르스크 고고학자들은 동방 언어 전문가를 필요로 하기 시작했는데, 유. 엠. 부쩨는 이 작업에 매우 적합한 사람이었다. 유. 엠. 부쩨는 처음에 한국어로 발간된 북한 고고학 출판물의 번역가로 활동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그가 남긴 남북한 연구자들의 책에 대한 비평, 더 나아가 그가 한국 고대사 연구자로서 발표했던 출판물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76년에서 1982년까지 유. 엠. 부쩨는 다음과 같이 한국 고대사 및 한반도 고고 문화를 다룬 논문들을 연이어 발표하였다. 「고조선의 매장 문화에 대하여(О погребениях Древнего Чосона)」(1976년), 「고조선의 토기 제작술(Керамика Древнего Чосона)」(1977년), 「『조선 원시 고고학 개요』¹²⁾에 대한 서평(рецензия на книгу «Основы первобытной археологии Кореи»)」(1977년), 「고조선의 법률 가운데 3개 조항(Три статьи из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Древнего Чосона)」(1978년), 「고조선의 문제(Проблема Древнего Чосона)」(1978년), 「고조선의 물질문화(Материальная культура Древнего Чосона)」(1978년), 「고조선 역사의 시기 구분(Периодизация истории Древнего Чосона)」(1979년), 「『조선 고고학 개요』¹³⁾에

12) (역주3) 서지사항: 김일성종합대학 편, 『조선 원시 고고학 개요』,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71

대한 서평(рецензия на книгу «Очерки по археологии Кореи»)(1981년).

위 연구들은 유리 미하일로비치 부진의 한국과 관련한 학술 연구의 체계와 그 높은 성과를 잘 보여준다. 물론 노보시비르스크의 유력한 고고학 학교, 높은 동기를 부여했던 한국 관련 수업들, 여기에 그 자신의 고대사에 대한 높은 관심 덕분에 그는 동방 고고학 및 역사학이라는 복잡한 분야에 빨리 입문할 수 있었다. 한국 고고학자들이 발표한 자료들을 토대로 했던 그의 독자적 역사학은, 오랜 시간을 요하는 고고학적 발굴에서 자유로운 일종의 틈새 분야라 할 수 있었다.

1982년 노보시비르스크의 나우카 출판사에서는 과학 아카데미 회원 아. 페. 오클라드니코프의 편집 하에 유. 엠. 부진의 전문 저작인 『고조선: 역사고고학적 개요』¹⁴⁾를 출간했으며, 1984년에는 그의 다음 저작인 『고조선에서 삼국까지의 한국(BC 2세기~AD 4세기)』¹⁵⁾을 간행하였다. 이 책은 소련에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던 해당 주제 관련 연구 성과들을 개괄하고 체계화한 것이었다.

모든 게 성공적인 것 같았다. 10년 동안 유. 엠. 부진은 역사고고학의 새로운 주제에 대한 연구를 대대적으로 수행하였으며, 고고학, 역사학, 역사

13) (역주4) 서지사항: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조선 고고학 개요』,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

14) Ю. М. Бутин, “Древний Чосон: (Ист.-археол. очерк)”, Отв. ред. А.П. Окладников, Новосибирск : Наука, Сиб. отд-ние, 1982, 330 с.
(유. 엠. 부진, 『고조선: 역사, 고고학적 개요』(책임편집: 아. 페. 오클라드니코프), 노보시비르스크: 나우카 출판사 시베리아 지사, 1982. 총 330쪽.)

15) Ю. М. Бутин, “Корея: от Чосона к Трем Государствам (II в. до н. э. - IV в.)”, отв. ред. А.П. Деревянко, Москва : Наука, Сиб. отд-ние, 1984, 255 с.
(유. 엠. 부진, 『고조선에서 삼국까지의 한국(BC 2세기~AD 4세기)』(책임편집: 아. 페. 제레반코), 모스크바: 나우카 출판사 시베리아 지사, 1984. 총 255쪽.)

문헌학, 세계사 등 그는 여러 학문의 교차 지점에서 성공적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다가 그는 카자흐스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과학 아카데미 고고민속학 연구소로 일자리를 옮겼고, 1986년에 소련 과학 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 레닌그라드 지부에서 논문 「원삼국 시대의 한국」을 발표하였고, 레닌그라드에서 세계사 전공으로 학위논문심사를 통과하여 역사학 박사가 되었다.¹⁶⁾¹⁷⁾

그가 직장을 바꾼 것과 함께 노보시비르스크가 아닌 레닌그라드에서 학위논문 심사를 받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도 알 수 없다. 아마도 노보시비르스크에서는 동방학 분야로 박사학위논문 심사를 받을 수 없었기에 소련 동방학의 중심지인 레닌그라드로 갔던 것이라 생각된다.

1989년에 유. 엠. 부젠은 이르쿠츠크로 돌아왔으며, 이르쿠츠크 인민 경제 연구소에 새로운 학과 설립에 착수하였다. 동방 국가 및 동방 언어에 대한 그의 큰 관심은 동남아시아 국가 경제학과-나중에 세계경제학으로 이름을 바꾼다-창설의 밑거름이 되었다. 이 학과는 벌써 30년이 넘게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유리 미하일로비치 부젠은 본래 이 학과를 기반으로 중국-한국-일본-몽골 경제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동방학 연구소를 설립하고자 하였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는 실현되지 못했다. 대학 당국은 EU 국가들과의 협력 및 러시아-프랑스, 러시아-독일 교육 프로그램 창설에 행정적인 관심을 두고

16) Ю. М. Бутин, 'Корея в эпоху ранних государств', автореф. доктора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Л., 1986, 35 с.

(유. 엠. 부젠, 「원삼국 시대의 한국」, 레닌그라드: 역사학 박사학위논문, 1986. 총 35쪽.)

17) (역주5) 유. 엠. 부젠 박사학위논문의 서지사항은 위의 필자가 언급한 것과 러시아 국립 도서관 소장 정보와 다소 차이가 있다. 러시아 국립 도서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해당 논문의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Юрий Михайлович Бутин. 'Корея в эпоху ранних государств', диссертация ... доктора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 Алма-Ата, 1986, 372 с. (유리 미하일로비치 부젠, 「원삼국 시대의 한국」, 알마티: 역사학 박사학위논문, 1986. 총 372쪽)

있었으며, 이에 따라 동방학에 대한 역량은 유지하면서도 교육 프로그램의 방향을 서유럽 쪽으로 전환시켰다.

아쉽게도 이르쿠츠크 인민 경제 연구소(지금의 바이칼 국립 경제 법학 대학)에서 일했을 때인 1990년대 유. 엠. 부진의 개인 정보는 찾을 수 없었다. 그의 개인 정보들은 유. 엠. 부진이 대학에서 떠나면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함께 없어져 버렸고, 그렇기에 문서보관소에 남아있던 1969년에 생산된 그의 개인 자료를 발견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이후에 유. 엠. 부진은 이르쿠츠크 종합 기술 교육 연구소(Иркутский политехн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의 동방학부 및 시베리아 법·경제 및 경영 연구소(Сибирская академия права, экономики и управления) 상업 학부(Коммерческий институт)의 지역학 학과, 동방언어학과 창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유. 엠. 부진의 동료들과 학생들이 기억하는 그는 여섯 개의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던 박식한 강사이자 연구자였다. 그가 출간한 학술 업적은 전문 학술 서적이 3권, 한국어 교재, 그리고 학술 교재인 『동아시아 경제사』¹⁸⁾ 등을 포함하여 50여 편으로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 그러나 유. 엠. 부진의 모든 학술 업적은 연구자 및 학생들이 필요로 한 것으로서 한국 고대사 및 고고학에 대한 그의 아이디어들은 각각의 생명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2001년에 유. 엠. 부진은 그가 집필한 논문 두 편, 즉 「고대 한국의 토기(Древнекорейская керамика)」와 함께 고대 한국의 민요 아리랑에 대한 내용인 「아리랑」이 포함된 논문집 『동방 연구(Восточные этюды)』¹⁹⁾

18) Ю. М. Бутин, “Экономическая история Восточной Азии”, Иркутск : Изд-во Иркут. ун-та, 1994, 272 с.

(유. 엠. 부진, 『동아시아 경제사』, 이르쿠츠크: 이르쿠츠크 국립 대학 출판부, 1994. 총 272쪽)

19) науч. ред. Ю.М. Бутин., “Восточные этюды. Сборник научных трудов СИПЭУ”, Иркутск : Изд-во СИПЭУ, 2000-2001 гг. 159 с.

를 간행하였다. 특히나 그의 말년의 연구 업적 가운데는 한국어와 프랑스어 간의 유사성을 다룬 것도 있다.

시베리아 법·경제 및 경영 연구소의 유리 미하일로비치의 동료들은 2003년에 『한국어 교본』을 출간하였는데, 이 책의 출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동방어 수석 강사 아. 베. 헤가이(A. B. Хегай)와 지역 경제학부 졸업생인 아. 크라스노페예바(A. Краснопеьева)와 아. 네카자첸코(A. Нека заченко)였다.²⁰⁾

한국 고대사에 대한 유리 미하일로비치 부젠 교수의 창조적 유산은 러시아와 남한에서 연구가 계속되고 있으며, 그의 학술 저작 및 한국 고대사에 대한 학술적 평가는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르쿠츠크는 20세기 러시아의 뛰어난 한국학 연구자인 유리 미하일로비치 부젠과 보리스 드미트리예비치 박(Борис Дмитриевич Пак) 교수가 연구 활동을 수행했던 행운을 누렸다. 현재 한국학 연구는 이르쿠츠크 국립 대학에서 순조로이 계속되고 있다. 이 대학에는 이바노프 콘스탄틴 블라디미로비치(Иванов Константин Владимирович)가 책임자로 있는 한국학 연구 센터가 설립되어 있다.

이 센터에서는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협조 및 재정적 지원으로 “러시아와 한국 : 시베리아에서 바라본 전망(Россия и Корея: взгляд из Сибири)”이라는 이름의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²¹⁾ 또한 이르쿠츠크 국립 대학에서는 성과적이고 효과적으로 한국어

(유. 엠. 부젠 편, 『동방 연구: 시베리아 법·경제 및 경영 연구소 학술 논문집』(책임편집: 유. 엠. 부젠), 이르쿠츠크: 시베리아 법·경제 및 경영 연구소 출판부, 2000-2001. 총 159쪽)

20) Ю. М. Бутин, “Учебник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ркутск : Изд-во СИПЭУ, 2003, 152 с.

(유. 엠. 부젠, 『한국어 교본』, 이르쿠츠크: 시베리아 법·경제 및 경영 연구소 출판부, 2003. 총 152쪽)

21) “Россия и Корея: взгляд из Сибири - 2021 : Тезисы и доклады Межд.

통역사를 양성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이르쿠츠크에서 한국학 연구가 계속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науч. конф.”, Иркутск, 2021. 190 с.

(『러시아와 한국: 시베리아에서 바라본 전망(2021년 10월 9-10일에 개최된 이르쿠츠크 국제 학술대회 발표집)』, 이르쿠츠크: 이르쿠츠크 국립 대학 출판부, 2021. 총 190쪽.)